

## U7+ 2020 세계 대학 연합 회담

### Q. U7+ 회담이란?

A. U7+ 회담은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학 총장간 최초의 연합 모임인 U7+ 연합의 연례 행사이다.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맞서 G7 국가의 정부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대학이 연계하여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 Q. 그 동안 U7+ 회담은 몇 번 있었나?

A. 이번이 두번째 U7+ 회담이다. 첫번째는 작년 프랑스에 시앙스 포(Sciences Po)라고 불리는 파리정치대학 (Paris Institute of Political Studies) 에서 열렸으며 이 회담에 47 개의 대학 리더들이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아프리카, 호주로부터 참여한다.

### Q. 2020 U7+ 회담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열리는가?

A.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과 관련되어 공중 보건의 안건과 여행 제한으로 인해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주최 할 예정이다.

### Q. 노스웨스턴 대학은 U7+ 회담을 주최하길 원했나?

A. 세계는 현재 긴급한 도전들 앞에 서 있다. 기후변화와 이주의 문제부터 전세계적인 보건 문제와 국가 안보의 문제들이 있으며 노스웨스턴 대학을 포함한 대학교들은 국경을 초월해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U7+ 회담을 주최하는 것은 노스웨스턴이 지향하는 목표와 평행하며 그 중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지성인들이 모여 세계적인 문제들에 해답을 찾는 것도 포함된다.

### Q. 노스웨스턴은 어떻게 이 회담의 주최측으로 선정되었나?

A. 노스웨스턴 대학은 U7+ 연합에 대한 강한 헌신과 대학교의 글로벌 리더십과 참여 실적을 바탕으로 2020 U7+ 회담을 주최하기로 U7+ 연합 집행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선정되었다. 노스웨스턴은 공동 협력 학교인 콜럼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 조지타운대학 (Georgetown University) 그리고 UC 버클리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과 협력하여 주최할 것이다.

### Q. 왜 U7+ Alliance (연합)라고 불리는가?

A. 이 연례 회담은 주로 연례 글로벌 리더들의 G7 정상회담 바로 이전에 열린다. U7+ 은 G7 국가에 있는 대학교들을 뜻하며 동시에 그 외에 전세계에 퍼져 있는 대학교들도 포함된다.

**Q. U7+ 연합은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가?**

A. 2019 U7+ 회담에서 대학 리더들은 다원적인 차원의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처할 방안을 제시할 6 가지 원칙을 정했다. 몇가지 쟁점 문제들 중에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 불평등과 양극 사회, 테크놀로지의 발전, 지역사회의 참여와 영향이 포함된다.

**Q.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Emmanuel Macron)이 2019 U7+ 회담을 주재했는데. 2020 U7+ 회담은 누가 주재할 것인가?**

A: 미디어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본회의에는 유엔 사무총장 청년특사(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s Envoy on Youth)인 자야트마 위크라마나야케(Jayathma Wickramanayake) 의 특별 연설이 있을 예정이며, 여러 대학 리더들이 세계적 활동가로서의 대학들의 역할을 논의하는 노변 담화를 이끌 것이며, 아카펠라 학생 그룹인 퍼플 헤이즈 (Purple Haze) 의 폐회식 스페셜 공연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Q. 누가 U7+ 회담에 참가하는가?**

A. 우리는 G7 국가와 그 외의 나라에서 100 명이 넘는 대학교 리더들이 참가할 거라 예상하고 있다.

**Q. 2020 U7+ 회담에 어느 대학교들이 초대 받았나?**

A. 20 개국의 100 명이 넘는 대학총장들과 지도자들이 이번 해 U7+ 회담에 초대되었다:

- 폴 세잔 대학교 (프랑스) Aix-Marseille Université (France)
- 아셰시 대학교 (가나) Ashesi University (Ghana)
- 오스트레일리아국립 대학교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ustralia)
- 콜롬비아 대학교 (미국) Columbia University (United States)
- 에콜폴리테크니크 (프랑스) École Polytechnique (France)
- 베를린 자유 대학교 (독일) Free University Berlin (Germany)
- 조지타운 대학교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United States)
- HEC 파리 대학교 (프랑스) HEC Paris (France)

- 히토쓰바시 대학교 (일본) Hitotsubashi University (Japan)
- 펠릭스우푸에 부아니 대학교 (코트디부아르) Université Félix Houphouët-Boigny (Ivory Coast)
-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영국) Imperial College London (United Kingdom)
- 인도 공과대학교 봄베이 (인도)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Bombay (India)
- 게이오기주쿠 대학교 (일본) Keio University (Japan)
- 케냐타 대학교 (케냐) Kenyatta University (Kenya)
- 교토 대학교 (일본) Kyoto University (Japan)
- 런던정치경제 대학교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United Kingdom)
- 뮌헨 대학교 (독일)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Germany)
- 맥길 대학교 (캐나다) McGill University (Canada)
-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 파리 과학인문학대학교 (프랑스) Paris Sciences et Lettres (France)
- 오사카 대학교 (일본) Osaka University (Japan)
-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 (이탈리아) Sapienza University of Rome (Italy)
- 파리 정치 대학 (프랑스) Sciences Po (France)
- 서울대학교 (한국)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 소르본 대학교 (프랑스) Sorbonne Université (France)
- 뮌헨 공과대학교 (독일)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Germany)
-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ted Kingdom)
-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멕시코)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Mexico)
- 보코니 대학교 (이탈리아) Università Bocconi (Italy)
- 밀라노 대학교 (이탈리아) Università degli Studi di Milano (Italy)
- 다카 대학교 (세네갈) Université Cheikh Anta Diop (Senegal)
- 니스 대학교 (프랑스) Université Côte d'Azur (France)
-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아르헨티나) Universidad de Buenos Aires (Argentina)
- 보르도 대학교 (프랑스) Université de Bordeaux (France)
- 그르노블 알프스 대학교 (프랑스) Université de Grenoble Alpes (France)
- 리옹 대학교 (프랑스) Université de Lyon (France)
- 파리 대학교 (프랑스) Université de Paris (France)

- UM6P 대학교 (모로코) Université Mohammed VI Polytechnique (Morocco)
- 파리 사클레 대학교 (프랑스) Université Paris Saclay (France)
-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프랑스) Université de Strasbourg (France)
-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 UC 버클리 대학교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ted States)
- 케임브리지 대학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United Kingdom)
- 케이프타운 대학교 (남아공) University of Cape Town (South Africa)
- 에든버러 대학교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United Kingdom)
-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독일) University of Heidelberg (Germany)
- 이바단 대학교 (나이지리아) University of Ibadan (Nigeria)
- 만하임 대학교 (독일) University of Mannheim (Germany)
- 몬트리올 대학교 (캐나다) University of Montreal (Canada)
- 나이로비 대학교 (케냐) University of Nairobi (Kenya)
- 나폴리 프리드리히 2 세 대학교 (이탈리아) University of Naples Federico II (Italy)
- 오타와 대학교 (캐나다) University of Ottawa (Canada)
- 도쿄 대학교 (일본) University of Tokyo (Japan)
- 토론토 대학교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Q: 2020 U7+ 회담의 주제와 안건이 무엇인가?**

A. 올해 회담은 세대간의 공정성을 장려할 수 있는 대학들의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며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차세대의 권익과 권리를 고려해서 강구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세계 청소년들의 희망과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대학 지도자들은 G7 국가 기관들과 다른 정부간 기관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다. 총장 회담에서 나누어질 주제들은 청소년 정신건강, 코로나가 청소년들의 취업과 유학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적용 등이 있다. 또한 이 회담에는 전세계로부터 청년들이 참여하여 고등교육의 미래상에 대한 비전을 나눌 것이며 최종적으로 다음 세대의 교육과 경제적 기회를 장려하는 새롭고 보완된 헌신책을 제시하며 마무리될 것이다.

**Q. 2020 U7+ 회담의 주제와 안건은 어떻게 준비되고 확정되었는가?**

A. 노스웨스턴 대학과 공동주최자들은 U7+ 세계대학 연합 집행위원회와 협력해서 2020 U7+ 회담의 안건을 준비했다. 이것은 2019 시앙스 포(Science Po)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U7+

회담에서 시작된 일을 바탕으로 구체화되어 갈 것이다. 12 개국의 22 개의 대학교 학생들 또한 올 해 회담의 안건을 결정 짓는 데에 한몫을 했다. 2020 년 7, 8 월에 이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모여 대학교들이 불평등, 불의, 기후변화등을 포함한 시급한 세계적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학이 그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의견들을 가지고 올 해의 회담의 논의를 시작할 것이고 U7+연합의 내년도 계획을 나눌 예정이다.

**Q. 올해의 U7+ 회담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A. 올해의 회담은 세대간의 공정성과 G7 과의 다원적 참여를 위한 공약들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공약들은 전세계의 대학교들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시발점과 협력체계, 그리고 전세계에서 지역별로 조직화된 절차를 확립할 것이다.

**Q. 작년 첫 회담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U7+ 연합은 첫 해에 무엇을 이루었는가?**

A. 첫 회담 이후로 U7+연합 회원들은 착수 위원회를 조직하여 각자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1 개교 U7+ 대학 지도자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연구, 발표에 협력하고 있다. 토론토 대학교와 에든버러 대학교가 주도하고 있는 그룹에서는 대학교들이 각 교에서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려 하고 있고 이를 감찰하는 조사기록을 하고 있다. 또 다른 U7+ 위원회에서는 12 개교 이상의 대학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인공지능과 테크놀로지가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16 가지 권고사항을 담은 논문을 출간했다. 또한 U7+ 대학들은 정의롭고, 친환경적이고, 번영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 사회 조직, 비정부 기구, 시민, 다국적 기관, 그 외 다른 세계적인 지도자들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 중이다.

**Q. U7+ 회담의 공식적 해시태그(#)는 무엇인가?**

A. 이벤트 관련 뉴스를 공유할 때는 해시태그 '#U7Alliance'를 권장하고, 해당시에는 '@NorthwesternU'를 주최 기관으로 태그할 것을 권장한다.